[경남소식]농어촌공사 창원지사, 수질환경보전회 간담회 등

등록 2026.11.26 17:35:32



[창원=뉴시스]농어촌공사 창원지사, 수질환경보전회 간담회.(사진=농어촌공사 창원지사 제공) 2026.11.26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창원=뉴시스] 김기진 기자 =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(지사장 조원득)는 26일 수질환경보전회 간담회를 개최했다.

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'수질환경보전회'는 지자체, 환경단체, 환경전문가, 농업인단체,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어 농업용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하는 거버넌스이다.

이날 회의는 조원득 지사장을 비롯한 내부위원과 경상남도청 및 창원시 환경관련 공무원, 농업인, 환경전문가 등 분야별 위원들이 참석해 수질관리 역량강화 및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 수행 실적 등을 점검했다.

또한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수질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토론시간을 가졌다.

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및 수질환경보전회는 앞으로도 농업용수 수질개선 및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수질관리로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기반을 구축해 ESG경영(환경보호·사회공헌·윤리경영)실천에 앞장설 방침이다.

◇의령군, 2027년 예산안 5038억 원 편성…군정 화두는 '정착'



의령군이 2027년도 예산안을 5038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내년도 군정의 화두로 '정착(定着)'을 제시했다.

오태완 군수는 내년도 군정 운영의 방향으로 '정책의 정착', '사람의 정착', '산업의 정착'을 제시했다.

버스완전공영제와 민생현장기동대 등 생활밀착형 정책은 군민의 일상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고, 일자리와 주거, 교육·돌봄 환경을 갖춰 청년과 가족이 의령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. 아울러 부림일반산업단지 기업 유치와 농업·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그 성과가 군민의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.

이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349억 원(6.49%) 감소한 5038억 원으로, 일반회계 4335억 원과 특별회계 703억 원으로 구성됐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sky@newsis.com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